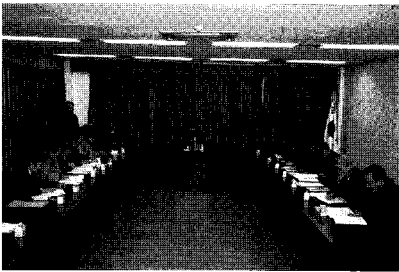


전문지 기자 간담회(12. 15) 개최

- 낙농부문 FTA 정부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협회는 12월 15일(화)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낙농부문 FTA 정부대책에 대한 협회입장과 함께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농가 요구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정부의 FTA낙농대책에 대한 문제점지적과 함께,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를 거쳐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가 요구하는 FTA 낙농대책은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생산자위원회 설치, 협동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구), 쿼터감축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도입, 낙농 폐업지원금 및 영세농가 회생자금 지원, 쿼터은행 제도 및 쿼터구입 장기저리자금 지원, 생산자가 쿼터를 관리하는 체계화에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 지원 방안 마련, 치즈기금 설치, 생산자위원회 내 분유가공공장 설치 등이다.

한편, 이승호 회장은 정부의 FTA낙농대책은 불합리한 현 낙농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반면 낙농가가 가장 우려하는 소득감소(쿼터감축)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지적하고,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 농가 숙원사항을 다시금 확인한 만큼 앞으로 협회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한 협회입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낙농부문 FTA 정부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농식품부의 FTA낙농대책은 반드시 생산자대책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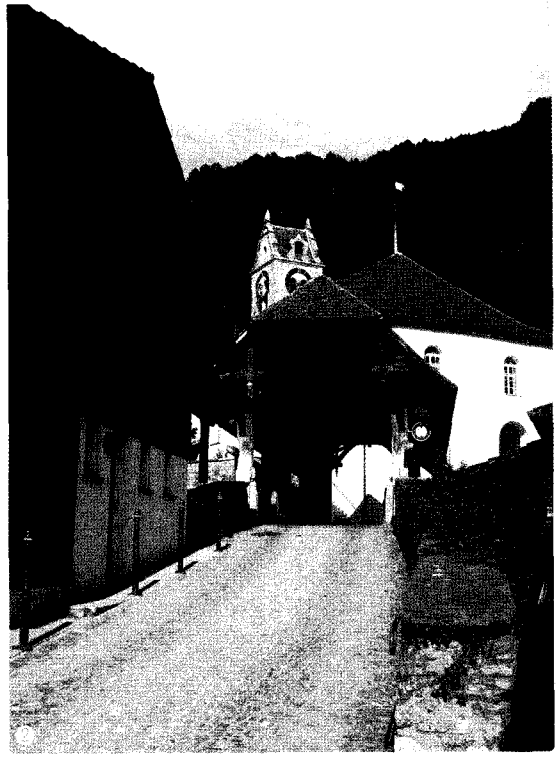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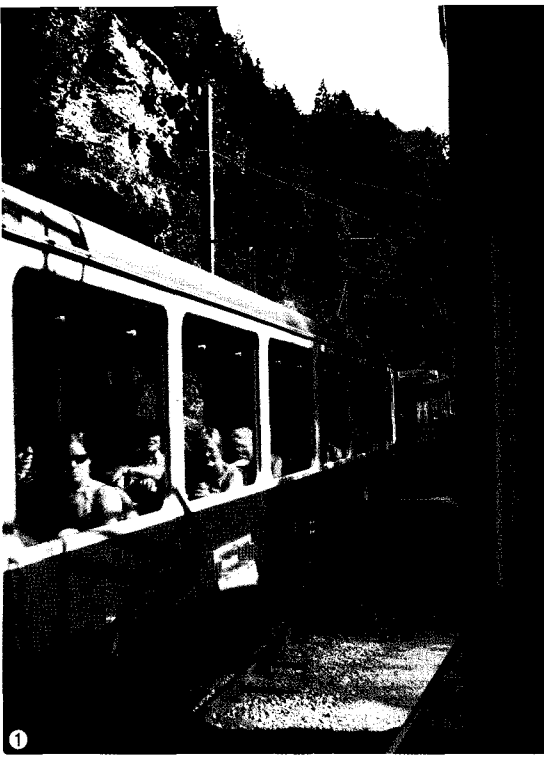
1. 금번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미국, EU를 비롯한 낙농강대국들과의 FTA 발효 이후 과연 한국낙농을 살리는 대책이 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관세가 낮아지고 10년 후에는 모든 유제품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낙농과 우리 낙농인들이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솔직히 대책이랍시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심정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2. 한마디로 이번 농식품부의 종합대책은 낙농강대국들과의 FTA 하에서 한국낙농산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낙농인들이 살아 남아 지속가능한 낙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대책은 애써 외면한 채 지난 2007년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내용과 사실상 포장만 바꿔 내놓은 것이나 진배없어 보입니다. FTA 하에서 우리 낙농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국산원유 사용이 수입원료로 대체되고, 이로 인해 쿼터감축과 소득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이는 우리 낙농인들이 당면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3. 정부대책의 핵심내용인 원유 쿼터관리는 현재의 집유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신설되는 중앙낙농기구에 자율적으로 가입시켜 전국적인 연합쿼터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대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집유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또 정부가 표면적인 목표로 말하고 있는 전국쿼터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나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4. FTA 대책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제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함께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개최되었던 전국 낙농인 순회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낙농인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설명드리고 정부의 올바른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위스의이곳 저곳

Swiss

글·사진 : 김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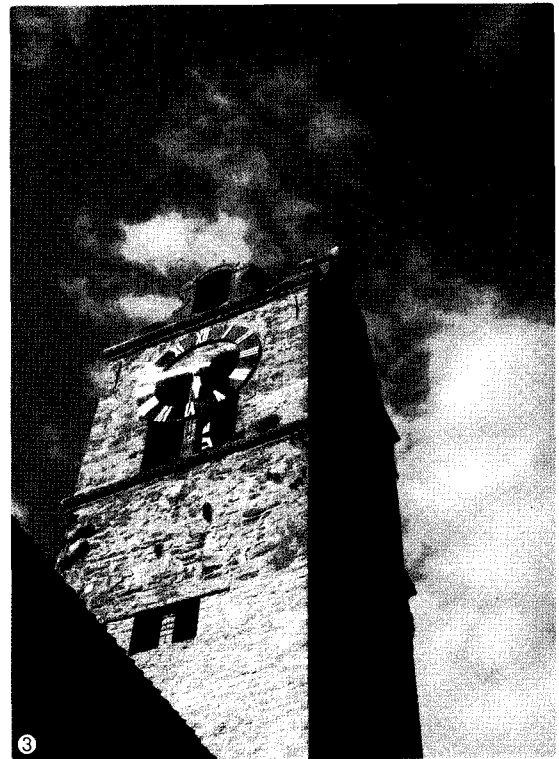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스위스의 작은 볼거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광도시인 스위스는 융프라우, 쉴트호른, 취리히처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볼거리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만, 동화 속의 삽화가 실재하는 것 같은 작은 마을과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못지 않은 재미를 선사한다. 어느 여행 책에서도 찾기 힘든 스위스의 작은 마을과, 스위스의 풍광을 가로지르는 골든 패스, 작지만 큰 도시 베른과 로잔을 소개한다.



빌더스 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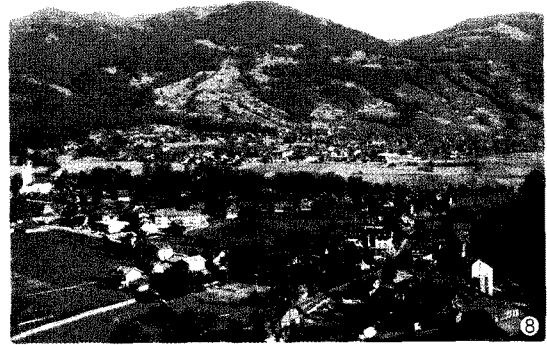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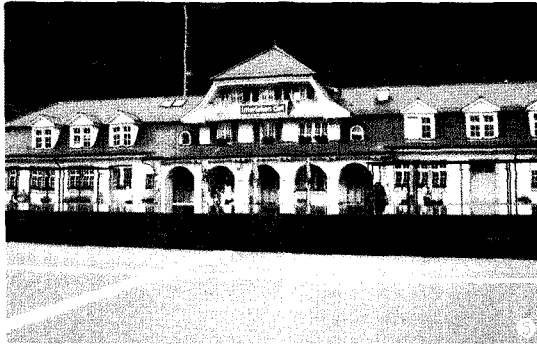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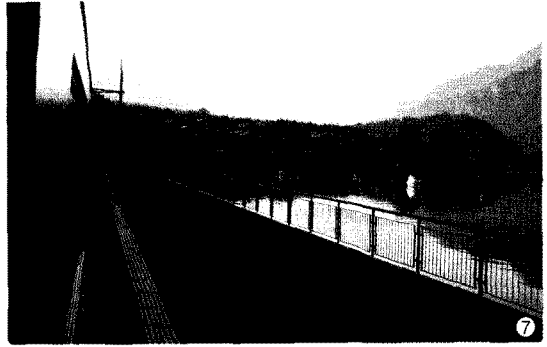
스위스가 녹아있는 작은 마을

(전편에 이어) 융프라우의 웅장함이 가슴 속에 살아있는데, 시계를 보니 아직 열차 시간에 여유가 있다. 나는 산악열차에서 무작정 내려 작은 마을을 탐험하기로 했다. 막상 기차역에 내리니, 일요일 오후의 한낮같이 마을이 조용하다. 나는 스위스가 준 평화로움을 만끽하며 아무 계획 없이 발이 닿는 곳으로 향했다. 조금 걷다 보니, 4~5백년은 되었을 것 같은 목조 다리가 나온다. 하지만, 관광지로 박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차와 자전거가 지나다니며 마을을 잇는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과거의 관광지와 현재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된 우리의 삶과는 다른 모습이 참 부러웠다. 뭔가 때려부수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담고, 최소한의 것들만 고쳐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넉넉해 보였다. 한참을 걷자니 작은 광장이 나오고, 교회가 나온다. 어느 유럽도 마찬가지이지만, 스위스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나 마을들이 작아서 이런 구조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어느 도시를 가나, 만약 길을 잃게 되면, 어디서나 보이는 교회 첨탑을 중심으로 다시 길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다. 오랜만에 이 먼 곳에서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을 한참이나 즐기며 다시 마을을 나오니, 꽃이 만발한 예쁜 공원이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묘지였다. 묘지를 이렇게 이쁘게 꾸밀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



- ① 산악열차
- ② 융프라우 산자락의 마을
- ③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교회의 시계 첨탑

해보니, 오히려 이곳에 무덤덤한 묘지가 있는 것이 더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든패스

그림엽서가 한장 한장 넘겨져 풍경을 이루다.

다시 인터라켄 오스트역이다. 융프라우 여행의 출발지인 이 역은, 또 하나의 훌륭한 여행코스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바로 골든패스다. 골든패스는 2개의 호수를 따라 인터라켄에서 루체른을 잇는 기차 라인을 일컫는다. 이 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진 경관을 가진 열차 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꽤 긴 거리(4시간 가량을 이동한다)여서, 물론 이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눈을 사로잡는 풍광으로 인한 관광의 목적이 더 커서, 열차의 1등석은 열차 천장이 유리로 된 파노라마석이 운행된다. 두 호수를 따라가는 여행은 마치 한 장 한 장 그림 같은 풍경의 엽서를 파노라마로 촬영하여 넘겨보는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이 그대로 전해지는 호수를 접한

- 예쁘게 꾸며놓은 마을의 묘지
- 골든패스를 탈 수 있는 인터라켄 오스트역
-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골든패스 1등석 객차
- 골든패스가 정차하는 튜호수 근처의 기차역
- 골든패스가 스쳐 지나가는 전원 마을들
- 가파른 언덕의 로잔시

스위스의 수도는?

가끔 어느 나라의 수도는 어디일까? 라는 퀴즈가 종종 나온다. 그 중에서도 나름 고난이도라 생각되는 스위스의 수도는 바로 베른이다. 많은 사람들이 취리히, 제네바 등등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취리히가 스위스의 가장 큰 도시이면서 사회, 경제,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일 테고, 제네바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몰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스위스의 법적인 수도는 베른이다. 스위스를 가보게 된다면 더 헛갈리게 되겠지만, 혹시 모를 퀴즈를 위해 기억하자. 스위스의 수도, 베른!

마을들과, 하늘을 그대로 담아낸 호수를 보고 있자면, 잊고 있었던 감수성이 저절로 샘솟는 것 같은 기분이다.

베른

작은 도시, 그리고 스위스의 수도

프랑스로 가는 테제베의 여행길에 잠시 베른에 들렀다. 물론, 이곳 정취에 흠뻑 빠지려면 일주일도 부족한 시간이겠지만, 주요 볼거리만 봐야 하는 나 같은 바쁜 여행객에게는 만나절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베른에 도착한 시간은 어스름해 지는 저녁. 베른 역에 내리자마자 광장의 자유가 나타난다. 반호프 광장이었다. 자그마한 광장이었지만, 마치 도시 전체가 파티를 하듯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거리에 흘러 넘쳤다.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처럼 맘먹고 광장에 나온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라는 듯 자연스러운 모습의 사람들이 흘러 넘친다. 더구나 이른 저녁의 활기참까지 더해져, 이방인들은 약간 위축될 정도로 자유가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걸자니, 마르크트 거리가 나오고, 두 개의 분수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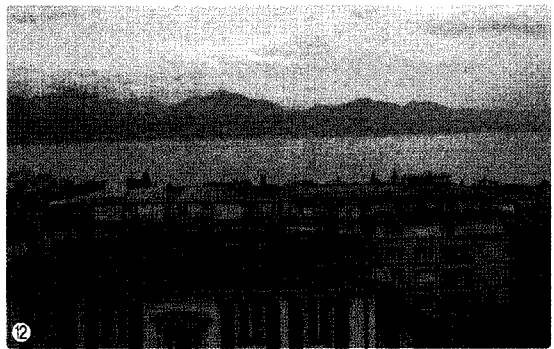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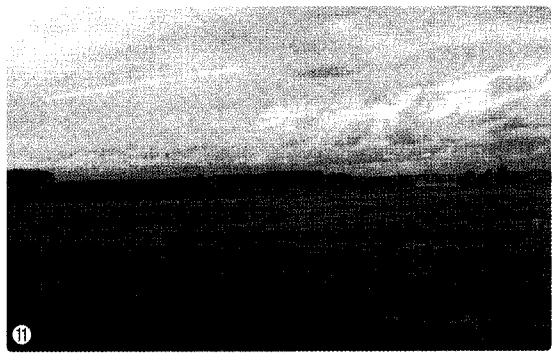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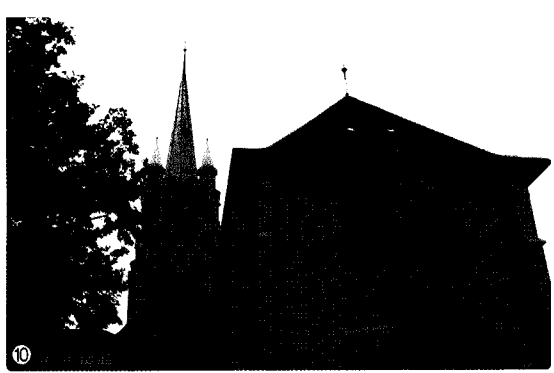
그리고, 이 도시의 중심 시계탑이 나온다. 시계탑 왼쪽에는 '식인괴물 분수'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분수가 있다. 흉측한 이름과는 다르게, 귀여운 곰 인형들이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베른을 지키는 형상을 하고 있다. 힘으로 지켜낸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그 거리 아래에서 자유스러운 시간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왠지 풍요로워 보였다.

로잔

호수를 안은 올림픽의 도시

파리로 향하는 테제베는 또 다른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서 나를 내리게 한다. 내린 중앙역에 '올림픽의 수도, 로잔'이라는 큰 간판이 걸려있다. 이곳이 올림픽의 도시가 된 이유는 국제올림픽 위원회 IOC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이 먼 곳에서 서울 올림픽을 승인 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 편이 뿌듯해온다. '올림픽의 수도, 로잔'이라 적혀있는 중앙역을 나서니, 바로 가파른 언덕길이 기다리고 있다. 이 작은 도시는 하나의 언덕이라 보면 된다. 언덕아래는 호수와 맞닿아 있고, 언덕 가운데가 중앙역, 그리고 언덕 위가 시의 중심지이다. 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니, 분주한 도심과 생프랑수아 성당 등 유적들이 보인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크지는 않



10 로잔 언덕 위 중심부에 있는 생 프랑수아 교회

11 프랑스로 가는 테제베 열차

12 로잔 중심부에서 보는 로잔의 전경과 레만 호수

지만, 아름다운 로잔의 전경과 레만 호수가 한눈에 보인다. 스위스에서 접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호수와 함께 흘러가는 것 같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림 엮서 같았던 스위스의 한 장면 한 장면을 걷고, 숨쉬며 지나온 여정이 가슴 가득하다. 동화책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파리로 가는 테제베에 몸을 실었다. ☺

다음 호에는 거리마다 넘치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편이 계속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홈페이지 www.cyworld.com/man0831

메일 man0831@naver.com